

한국양록 어제와 오늘

편집실

지번호에서는 「한국양록의 태동기」에 대해 살펴 보았다. 북한에서 사슴을 기르다 월남한 진교영씨의 소식을 알 수 없었는데 현재 치매 증상으로 병원에 입원중이라고 한다. 그리고 공진항씨 농장에서 사슴을 관리한 바 있는 윤명규씨 보다 김원성씨라는 분이 더 먼저 관리했다고 모인사가 전해 주었다. 김원성씨에게 연락을 취하고자 백방으로 수소문했으나 행방이 묘연하다. 이번호에서는 우리나라에 종록이 도입된 시기를 연도별로 알아 보도록 하겠다.

2. 종록도입기

① 대만 등지에서 꽃사슴 도입기

북한에서 입식한 수십두의 꽃사슴이 6.25 동란으로 거의 죽고 8마리(암3, 수5) 만이 살아 남아 1954년에 정릉 공진항씨 농장에 재 입식 시킨 내용을 이미 소개한 바 있다.

평소 사슴에 관심이 많았던 공진항씨는 1955년도에 동남아 사절단장으로 대만을 들르게 된다. 이때 주중한국 대사(大使)는 김홍일 장군으로 공진항씨와 안면이 있었던 것으로 짐작이 된다. 여기서 공진항씨는 대만산 꽃사슴 20두를 수입한다.

그후 황해도에서 군수를 진넨바 있는 김영훈(金永薰) 씨와 정릉(貞陵)에서 꽃사슴 목장을 하고 있던 강신종(姜信鍾) 씨에 의하여 대만산 꽃사슴을 1956년에 40두, 1957년에 20두, 1958년에 30두를 수입한다.

그리고 1959년에 서울 영풍상사의 장병희(張炳希) 씨가 일본에서 꽃사슴 50두를 수입하여 경기도 안양에 있는 농장에 입식시킨다.

이어 1960년에 충남 온양에서 사슴목장을 운영하고 있던 강성구(姜聖求) 씨에 의하여 대만산 꽃사슴 14두가 수입된다.

이렇게 1955년부터 1960년까지 매년 수입되던 사슴이 5.16사건과 정치의 소용돌이 속에서 뜸하다 1969년에 경남 울주군(현 울산시)에서 목장을 하고 있던 김한준(金漢俊) 씨에 의하여 대만에서 꽃사슴 50두, 일본에서 50두를 수입한다. 이후에도 자료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조금씩 일본에서 꽃사슴을 수입했다고 한다.

주로 꽃사슴이 대만과 일본에서 수입된 것이다. 이중에는 만주산 꽃사슴이 8마리(암3, 수5) 포함되어 자연히 대만과 일본에서 수입된 꽃사슴과 녹용생산면에서 비교 평가가 되는데 만주산이 평균 450g, 대만과 일본산이 225g 생산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목장 운

영양 녹용만 가지고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 이때부터 녹혈(鹿血) 판매가 새로운 농가소득 원으로 부각되기 시작한 것으로 많은 자료들이 뒷받침해 주고 있다.

② 미국에서 순록(馴鹿) 도입

꽃사슴 녹용생산량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업자들 사이에서는 옛날 백두산 아래에서 사육되던 마록(馬鹿)을 구할 수 없겠는지 생각이 머문다. 마침 1970년 재미 교포인 왕종택 씨가 국내 정치인과 손을 잡고 황해도 출신인 김영우(金永宇) 씨가 출자한 고려축산(高麗畜産)이란 회사를 설립하여 순록(馴鹿) 수입을 진행한다. 순록을 마록으로 잘못 알고 수입했는지 궁금한 대목이 아닐수 없다.

사슴에 대해 전혀 무지한 이들은 순록은 암수 공히 녹용이 생산된다고 정부당국자를 설득시켜 당시 제주도 지사인 구자춘(具滋春) 씨에게서 5.16도로변 7백고지의 국유림을 대부받아 목장을 설치하게 된다. 여기에서 2천 4백50만원을 농협에서 융자받아 드디어 알래스카산 순록(레드디어) 2백38두를 수입하여 김포공항에 도착시킨다. 김포공항에서 제주도 까지도 정부의 후원아래 공군수송기로 운반하여 입식시켰는데 6개월만에 전부 폐사되어 실패로 돌아가는 참극을 맞게 된다.

우리나라 기후에 적응시험 없이 북위 70도 영하 50~60℃에서 살던 순록을 북위 30도 이하 겨울에도 영하10℃를 유지하는 제주도로 입식시켰기 때문이다. 이렇게 대비책 없고 사슴에 대해 무지한 관계로 회사는 막대한 손해를 입고 도산하고, 특히 농림부 관계자들에게 사슴하면 손을 내젓는 「사슴 기피증」의 풍기를 유발하게 된다.

③ 일본에서 꽃사슴 도입

1972년 일본에서 꽃사슴 40두를 강성구(姜聖求) 씨외 1명이 수입했으며, 문희석(文熙奭) 씨가 1973년에 일본에서 1백59두의 꽃사슴을 수입했다.

④ 엘크·레드디어 도입

1974년 6월 강성구(姜聖求) 씨가 캐나다

에 직접가서 대륙종인 엘크(ELK) 1쌍을 수입하여 충남 아산시 소재 본인 소유인 은양사슴목장에 입식하여 시험사육 하였다. 그 결과 7~8월에도 무난히 적응하여 녹용생산량이 3.0kg이상이나 되었다. 그해 9월에 숫사슴 새끼를 출산하여 사육에 성공을 거두었다. 우리나라 최초로 엘크가 수입되어 농가에서 사육하게 되는 전기를 마련하게 된다.

이와함께 1974년은 자연농원(현 에버랜드)을 위시하여 많은 사람들이 사슴수입에 뛰어들어 기억될 만한 해로 평가되고 있다.

1974년 한해 동안에 강성구씨가 미국에서 엘크 1백68두를, 이승규씨가 뉴질랜드에서 레드디어 1백20두를, 자연농원이 미국에서 엘크 30두를, 홍순오씨와 박철대씨가 미국에서 엘크 1백50두와 캐나다에서 레드디어 68두를 수입했다. 특히 청평농장의 장명길(張明吉) 씨는 미국에서 순록 1백두를 수입하는 무지를 또한번 드러냈다. 이 순록도 청평농장에 입식한 70두는 전멸되었고, 강원도 화천에 입식한 30두는 몇년을 버티다 지금은 모두 사라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같은해 정영부 씨가 일본에서 꽃사슴 1백39두를 수입한데 이어 1년후인 1975년에도 24두를 수입했다. 그리고 이인표씨와 용환찬씨가 1975년에 미국에서 엘크 80두를 수입했다. 1975년을 기점으로 사슴수입 허가업무가 산림청에서 농림수산부로 이관되어 사슴수입이 뜸하다 1983년에 새마을 본부가 일본에서 꽃사슴 40두를 수입했다.

이와같이 1992년 UR협상에 의한 사슴수입 완전개방화 이전까지 숨가쁘게 외국으로부터 사슴이 수입된 것이다. 이때까지가 우리나라 양록사에 있어서 종록 도입기로 평가되고 있다.

이 기간동안 꽃사슴 7백36두, 레드디어 1백88두, 엘크 4백30두, 순록 3백38두 등 총 1천6백92두의 사슴이 수입된 것이다.

<표 참조>

이상 살펴본 바와같이 사슴수입 고비마다

종록도입 현황

연대	꽃 사 슴			레드디어		엘 크		순록 미국	수 입 자
	대만	일본	북한	캐나다	뉴질랜드	캐나다	미국		
1947			60						공진항, 우만형
1955	20								공진항
1956	40								김영훈
1957	20								강신종
1958	30								강신종
1959		50							장병희
1960	14								강성구
1969		100							김한준
1970								238	왕종택
1972		40							강성구
1973		158							문희석
1974						2	168		강성구
1974						150	30		홍순오, 박철대, 자연농원
1974				68	120				홍순오, 박철대, 이승규
1974		139						100	장명길, 정영부
1975		24					80		정영부, 이인표
1983		40							새마을본부
소계	124	552	60	68	120	152	278	338	총 1,692두



▲ 강성구씨

강원도 원주시 문막에서 선진사슴목장을 운영하고 있는 강성구씨는 현재 엘크 30여두를 사육하고 있다.

올해 78세인 강성구씨는 아직도 정정한 모습으로 장장 4시간여 동안 국내 양록의 발달사와 사슴수입 배경에 대해 이야기 했다. 사슴수입과 관련 애증의 인물로 업계에 알려져 있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강성구(姜聖求)씨다. 강성구씨를 지난 8월6일 서울 반포동 현대백화점 커피숍에서 만났다.

는 강성구씨로부터 들은 이야기중 양록인 모두가 궁금해 하는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다. 먼저 사슴과 어떻게 인연을 맺었는지에 대해 물었다.

『1947년에 온양에서 고구마를 3만여평 심었지요. 20관(75kg) 짜리로 1천5백가마 정도 생산하는 큰 규모였습니다. 전국에서 고구마가 제일 많이 생산되는 지역이었습니다. 이때 마을 이장(里長)을 맡았는데 공진항씨 농장에서 사슴을 관리하는 김원성씨가 어떻게 소문을 들었는지 저를 찾아 왔었지요. 겨울철을 나기 위해 사슴먹이로 고구마 순 말린 것을 구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처음으로 사슴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고구마 순을 가마니에 짹짹 눌러 담아 온양에서 기차로 서울로 운송해 준 것이다. 이때 김원성씨가 고맙다고 사슴꼬리 하나를 강성구씨에게 선물했다. 이때 강성구씨의 체중이 45kg으로 형편 없었는데 사슴꼬리를 고아 먹고

부터 몰라보게 차도가 생겼다. 위장이 나빠 소화도 안되고 설사를 했는데 거뜬히 나온 것이다. 강성구씨는 사슴에 매료되어 김원성씨에게 사슴을 키울수 있도록 부탁했다. 김원성씨가 번식해서 주겠다고 하자 직접 정릉 공진항씨 농장에 들러 분양해 줄것을 사정하는 도중에 6.25가 발발한 것이다.

일시 사슴에 대한 관심을 접어들 수 밖에 없었다. 6.25가 끝나고 1956년에 청와대 밑에서 거주하는 김영훈씨가 대만에서 꽃사슴 40두를 수입했는데 이중 3쌍을 분양받아 처음으로 사슴사육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꽃사슴 1쌍(성록)에 1백만원을 주고 분양받았다. 이때 숫사슴 1마리에서 나오는 녹용과 녹혈은 30만원에 팔았다고 한다. 30만원은 그당시 쌀 20가마와 맞먹는 금액이었다.

강성구씨에 대한 또하나 궁금증은 1974년도에 우리나라 최초로 캐나다에서 엘크 1쌍을 수입해 환경에 적응하도록 한 내용이다.

『개성에서 사슴을 사육하다 월남한 진교영씨가 서울 근교 삼화농장에서 관리를 하다 그만두고 집에 있을때 었습니다. 진교영씨 이야기가 팔뚝만한 녹용을 생산하는 사슴이 미국 공원에 있는데 정부와 타협해 50두를 기증기로 되어 있다는 소식 이었습니다. 이때만 해도 팔뚝만한 녹용을 생산하는 사슴이 엘크(ELK)인지 몰랐었지요. 무역업을 하는 조관현씨에게 부탁하여 엘크를 수입할 수 있는지 알아 보도록 했습니다. 조관현씨는 주로 캐나다를 상대로 무역을 했는데 돼지 20마리를 사기로 해 평소 알고 있었던 사이였지요. 조관현씨가 알아보고 캐나다에서도 엘크를 수입할 수 있다고 전해 왔습니다. 이 말만 믿고 엘크 1백두를 수입할 수 있도록 L/C를 열고 미국을 거쳐 캐나다로 날아 갔지요. LA를 거쳐 캐나다 밴쿠버 공항에서 조관현씨를 만나 사슴이 있다는 동물원을 방문했습니다. 주위에 사슴전용 농장은 없고 동물원에 꽃사슴만 잔뜩 있었습니다. 엘크는 몇마리 되지도 않고 팔지도 않아 황당하기 그지 없었다고 할까요. L

/C는 열어 놓고, 사슴 1백마리를 실어 날을 수송기도 계약해 놓고 - 어쩔수 없이 꽃사슴 50두, 곰 12두, 젓소 10여두, 엘크 1쌍을 수송기에 싣고 국내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캐나다를 방문한 강성구씨는 록키산맥 근처에 엘크가 살고 있고, 미국에도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다.

엘크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이번에는 미국 텍사스에 있는 농장으로 날아가 같은 해 1백68두를 추가로 수입했다. 이중 80두가 강성구씨 사슴이었다.

이외에도 강성구씨는 사슴과 관련된 이야기를 엄청나게 쏟아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원고가 진행되는 동안 계속해서 참고로 활용되어 전개될 것이다.

여기에서 흥미로운 것은 현 축협중앙회장인 송찬원씨와 관련된 이야기이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순록을 수입하여 입식에 실패한 쓰라린 경험으로 농림수산부 관계자들은 사슴수입에 아예 주눅이 들어 있었다.

5공화국 시절 전(全)대통령이 사슴을 수입하여 녹용을 자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라고 농림수산부에 명령했다. 대통령의 명령이라 거역은 못하고 어쩔수 없이 일본에서 꽃사슴 40두를 수입하여 4명의 농촌지도자들에게 10마리씩 분양하여 시험사육을 시도했다. 이들의 시험사육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와도 농림수산부 관계자들의 부정적인 시각으로 사슴사육의 저변 확대가 어려운 마당에 결과는 그렇게 신통치 않았다.

당연히 축산국장인 송찬원씨가 『사육결과 사슴이 죽고 녹용판매도 어려워 농가소득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보고한 것이다. 당연히 이때부터 92년 개방되기 전까지 사슴은 더 이상 수입되지 않았다.

만약 농림수산부 관계자들이 사슴이 농가소득원으로 발전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했다면 지금 우리의 양록업은 어떻게 변모했을까.

대단히 궁금하고 흥미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다음호에 계속>